

한영간 의인화의 차이*

이영옥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Lee, Young-Ok. 2008.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in Personification. *Linguistic Research* 25(1), 61-81. This paper compares Korean and English expressions where personification is used for description of an entity without human characteristics in reality. Personification is a major mode of figurative expression widely used in human languages, but the specific source and target domains for personification varies from language to language as personification is closely related to cultural background of each language. Korean, with collectivistic and high context culture, and English, with individualistic and low context culture, have unique linguistic features, not shared with the other language, adopted in almost every aspect of language, thus making it difficult for language learners of either language to master the other language. Personification is one example of such differences that reflect the basic cultural peculiarities as well as syntactic ones. Hopefully, this study will help learners of either language more easily learn the language through understanding the basic cultural differences. (**Kyung Hee University**)

Keywords personification, cultural differences, figurative usage, source domain, target domain, collectivism, individualism, high context, low context

1. 들어가기

언어의 특성을 비교하는 데 한국어와 영어는 서로 다른 언어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종이 다를 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문화권에 속하며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배경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비교연구 대상이라 하겠다. 한국어와 영어는 어휘를 비롯하여 기본어순, 문장구조, 비유법 등 제반 언어 현상이 현저히 다르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생활방식, 정치, 경제를 비롯하여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의사소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두 언어의 차이는 두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고맥락문화로서 언어적으로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상황의 맥락으로 언어적 표현에 의존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한국어는 개인주의적이며 저맥락문화를 배경으로 한 영어와는 여러가지 상이한 언어적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언

* 줄고를 심사하여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는 한편, 언어의 특성에 의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시각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즉, 언어와 문화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Edward Sapir와 Benjamin Whorf가 제시한 언어상대성이론 (Sapir-Whorf Hypothesis)의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Sapir 1949).

인지언어학과 화용론 분야에서 은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어교육분야를 비롯하여 언어 학이론을 중심으로 영어와 한국어 간 구문의 비교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의인화에 관한 한영간 비교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동사중심의 표현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와 명사중심 표현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영어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논한 후 이와 같은 언어적 특성이 의인화구문의 분포와 특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것이며, 이와 관련한 문화적 특성을 논할 것이다.

2. 동사중심 한국어와 명사 중심 영어

음운적 특성 및 어휘의 분포, 어순상의 차이, 명사에 부여되는 수개념, 시제구분 등에서 한국어와 영어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점 외에도 한국어는 영어와 비교하여 명사구나 명사절,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구문등과 관련하여 언어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다.

첫째, 영어에서 타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상황을 한국어에서는 자동사나 형용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영어에서는 “What started you taking an interest in physics?”와 같이 어떤 상황의 인과관계를 표현할 때 start와 같은 타동사를 사용하는 데 비하여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해서 물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와 같이 “무엇이 무엇을 일으키다”와 같은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하게 되다”와 같은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어에서는 사람이나 동물과 같이 의지적인 동작주가 아닌 무생물을 타동사의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이영옥 2001 참조). 이는 본 논문에서 앞으로 기술할 의인화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째, 영어에서는 다양한 전치사를 활용하여 동작의 방향과 태도, 방식 등을 표현하는 데 비하여 한국어에서는 하나 이상의 동사를 나열하는 복합동사구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 영어예문들의 한국어 대응예들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 (1) a. The announcement prodded us into action.
- b. He opened the door and forced the man out of the car.
- c. He elbowed his way to the front of the crowd.
- d. He trudged through deep snow to the village.

- (2) a. 그 발표에 자극을 받아 우리는 행동에 들어갔다.
 b. 그는 문을 열고 그 남자를 강제로 차 밖으로 밀어냈다.
 c. 그는 팔꿈치로 밀어 제치며 군중 앞으로 나아갔다.
 d. 그는 깊이 쌓인 눈을 뚫고 마을까지 터벅터벅 걸어갔다.

기본적으로 장소의 이동을 뜻하는 영문 (1)의 예들에서는 동사 자체가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양태를 지칭하는 동사와 더불어 장소나 방향을 지칭하는 전치사구만으로 어떤 특정한 양태의 행위를 동반한 장소이동의 의미가 표현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어에서는 장소이동을 표시하는 ‘들어가다, 밀어내다, 나아가다, 걸어가다’와 같은 동사와 더불어 양태를 지칭하기 위하여 (2a)의 ‘자극을 받아’와 같이 별도의 동사를 첨부하거나 (2b, c, d)에서와 같이 ‘강제로, 팔꿈치로, 터벅터벅’ 등과 같은 양태부사를 동반하여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어에서는 문장의 마지막 출현구성소가 다음절과의 연관성을 보이거나 발화대상과의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 화용론적 역할을 하는 서술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명사가 사용되는 위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영어에서와 같이 주명사를 중심으로 앞으로는 수사, 형용사, 분사, 뒤로는 또다시 형용사, 분사, 전치사구, 관계절, 등위절 등과 같은 다양한 수식구문이 사용되지 않는다.

넷째, 한국어에서도 복합명사가 사용되기는 하나 한국어에서는 영어에서 습관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직업을 지칭하는 접미사 ‘-er / -or’에 상응하는 표현이 훨씬 제한적이다. 예컨대, 한국어에서도 직업을 뜻하는 ‘-꾼, -장이, -가, -인, -자, -사, -수’등과 같은 접미사가 발달되어 ‘일꾼, 욕심장이, 음악가, 예술인, 기술자, 곡예사, 가수’등과 같이 복합명사를 생성할 수 있으나 이들은 특정 직업이나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영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영어에서는 다음의 대표적인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er / -or’가 단순히 사람의 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습관적 행위를 지칭하는가 하면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다음 (3)의 예들과 같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와 (4)의 예들과 같이 일반 사물이나 사건에 적용되는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에서 ‘-er / -or’접미사의 기능은 한국어의 직업지칭 접미사들보다 훨씬 다양하고도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Quirk et al. (1985)에서 이들 접미사는 매우 생산적 (productive)인 접미사로 분류된다.

- (3) a. Mr. Sago is a conservative dresser.
 b. My neighbor's daughter is a prompt payer of bills.
 c. As I became an avid reader, so I also began to have dreams of going to college.
 d. It sounds as if Dudley is a mighty restless sleeper.

- (4) a. It was a lung killer, climbing uphill in deep snow for 45 minutes to 13,000 feet.
- b. She mentioned that she was a beekeeper's daughter. "It's a great conversation starter," she says.
- c. I never thought the car dealers rip off their customers. Thanks for the eye-opener.
- d. I think my friend and I were bawling when we saw that movie, what a tearjerker.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영어 대비 한국어의 특성은 비유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의인화구문에도 반영되는 바, 다음 장에서는 의인화의 일반적인 특성을 개괄한 후 구체적인 사례들을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의미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그 차이점을 논하기로 한다.

3. 의인화 구문

Kövecses (2002: 34)가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많은 경험들을 쉽게 인지하고 이해하며 서로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생각을 이루고 이를 기록하거나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 지각할 수 있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직접적인 인지가 불가능하거나 힘들 경우, 즉, 추상적인 관념이나 다양한 사물의 움직임과 현상들에 구체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한적인 인간의 지각능력에 부합되는 인지와 이해가 가능하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가 상호의사소통이 가능해지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많은 수사학자들이 비유에 관하여 연구하였거니와, 일반적으로 비유에 관여하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간의 관계에 따라 일치의 관계는 환유(換喩: metonymy), 연결의 관계라면 제유(提喩: synecdoche), 유사성의 관계라면 은유(隱喩: metaphor) 등으로 구분하여 왔다 (Ricoeur 1975: 64). 의인화는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 사회학적 존재에 기반을 둔 은유법으로서 Lakoff and Johnson (1980: 25)에서 제시한 존재론적(ontological) 은유의 표본이다. 풍유(諷諭)나 우화(寓話: allegory)는 의인화의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은유는 실재하는 것이든 상상속의 존재이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근원영역으로 하여 목표영역의 대상을 묘사하기 위하여 치환하는 수사법인 바, 그 분류기준에 따라 추상적 관념-구체적인 사물, 인간-무생물, 생물-무생물, 무생물-동물, 인간-식물 등 그 조합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인간은 생물학적 분류체계로 보자면 동물의 한 종류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언어는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의사소통 기재라는 점에서 비유표현의 대상으로서도 인간은 다른 어떤 자연물보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의인화는 우리자신이 가장 친숙하고 절실한 인간의 조건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은유법으로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 좀 더 강력하게 인지되거나 더 잘 알려진 대상을 이용하기 위하여

(presenting one idea under the sign of another that is more striking or better known)¹⁾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의인화를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에 등장하는 대상의 생물학적 서열에 따라 좀 더 세분할 수 있는 바, 한 인간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인간으로 치환하여 표현하는 방법,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 등 다른 생물에 인간의 특성을 대입시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인간이 아닌 사물이나 사건, 즉 무생물의 특성에 일반적인 인간의 특성을 대입시켜 표현하는 방법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하였듯이 여러 비유법 가운데서도 의인화는 사람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이나 대상들을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속성으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기법이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신을 가장 잘 인지하고 친숙하게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인지하기 어렵거나 친숙하지 않은 대상을 인간의 여러 속성에 빗대어 표현할 때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의인화는 비인간적인 대상을 기술할 때 유일하게 인간의 속성인 인지작용, 생활양식 등을 지칭하여 표현하는 비유법으로 특히 간결하게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여야 하는 속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의인화 비유법은 그 언어의 언어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 자신의 존재 조건인 인간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는 범주들로 직업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방식을 비롯하여 특징적인 감정, 인지작용, 의식주와 관련된 주요활동 등이 의인화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간의 주요 신체부위도 비유법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역시 의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절들에서는 한국어와 차이를 보이는 영어 의인화의 예들을 그 종류별로 제시하고 그 특성을 비교검토하기로 하겠다.

3.1 한 인간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인간으로 치환

다음 예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의 속성을 묘사하는 데 ‘화가, 음악가, 가수, 사기꾼, 무법자, 황제, king, giant’ 등 사람의 직업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일반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5) a. 꼬마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아주 화가라니까.
- b. 주변 차들 겹주듯 운전하는 거 보면 도로 무법자나 다름없다.
- c. After 35 years as king of the art jungle, Leo Castelli may be nearing the end of his reign.
- d. Professor Henderson steps forward him, trying to adjust the microphone on his lapel, and Taft remains still, like a crocodile having his teeth cleaned by a bird. This is the giant at the top of Paul's beanstalk.

1) Ricoeur (1975: 67) 참조. 프랑스의 수사학자 Fontanier의 은유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사람의 직업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일반명사를 사용하는 위의 경우보다는 실제 존재하거나 소설, 연극, 드라마 등을 통하여 잘 알려진 인물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 그 구체성과 친숙함 때문에 비유법으로서의 효과가 더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다음이 그 예들이다.

- (6) a. 그녀는 가요계의 신데렐라이다.
 b. It's David versus Goliath, but that sling-shot is getting pretty big and pretty heavy.
 c. John's real Einstein.
 d. He [baseball player Dennis Eckersley] has been the Zorro of his era, and is never dull.

(6)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의인화는 같은 사람을 목표영역으로 하여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음과 같이 ‘돈’을 소설 삼국지의 명장 제갈량에 비유하는 한국어의 예와, 한 국가를 Jonathan Swift의 *Gulliver's Travels*의 주인공 Gulliver에 비유하는 영어의 예도 관찰되었다.

- (7) a. 돈이 제갈량이다.
 b. The strongest power in Europe, Germany, is no longer a shackled Gulliver.

실제 인물이거나 가상의 인물이거나 일반명사이거나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의 속성에 견주어 비유하는 비유법은 한국어와 영어 간 특별한 상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

3.2 다른 생물에 인간의 특성을 대입한 의인화

인간이 아닌 생물이거나 무생물에 인간의 특성을 대입하여 표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인화비유법이다. 여기서 비유대상 즉, 목표영역이 인간이 아닌 경우를 다시 생물과 무생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생물, 특히 동물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언어사용이나 지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활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인간의 특성을 대입시키기가 무생물의 경우보다 훨씬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생활과 친숙한 동식물들은 비유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동식물이 목표영역이 되는 의인화보다는 다음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근원영역으로서 목표영역인 인간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 (8) a. 일에는 균벙이요 먹는 데는 돼지다.
 b. 너 오늘 잘 하면 진돗개 되지만, 못하면 퐁개 된다.
 c. 배고픈 뱀새가 되더라도 황새처럼 한번 살아봐야지요.

- d. I always thought her a mouse.
- e. They say he's a hard dog to keep under the porch, but he ain't no thief.
- f. Irvine has named and shamed the fat cat lawyers and law firms.

그러나 목표영역이 인간이 아니라 생물인 경우는 동물세계의 사건들을 인간사회에 빗대어 표현하는 독특한 장르인 우화가 발달되어 있다. 동물이 인간처럼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을 비유의 근원영역으로 취하여 동물이라는 목표영역에 대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비유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우화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특성을 극화시켜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궁극적으로 인간의 특성을 그리고자 하는 비유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화의 형식으로 극화된 경우가 아닌 예들로서 대상이 되는 동물 자체의 행태를 묘사하기 위하여 인간고유의 행동특성을 지칭하는 표현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다음 (9)의 예들에서는 목표영역의 고양이나 개의 성질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람의 속성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양칼지다, 말을 잘 듣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소의 먹이에 관한 표현에 인간의 식사인 “dinner”를 사용하고 있다.

- (9) a. 고양이는 성질이 양칼지다.
- b. 개가 사람 말을 잘 듣는다.
- c. And the usual grass dinner for the 200 cows has been supplemented with hay.

그러나 동물을 목표영역으로 하고 인간의 속성을 근원영역으로 하는 비유는 (10)의 예에서와 같이 속담과 같은 특별한 장르에서 자주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무생물을 의인화하는 예보다는 드물다.

- (10) a.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 b.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 c.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 d.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 e. If the beard were all, the goat might preach.
- f. If the old dog bark, he gives counsel.
- g. It is little honor to the lion to seize the mouse.
- h. It is the old cow's notion that she never was a calf.

(9)와 (10)의 예들에서 밑줄 친 표현들은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표현들로서 목표영역인 동물을 사람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의인화의 예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속담이나 우화에서 사용되는 의인화비유법은 일반적인 의인화비유법과 궁극적인 초점이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3.3 무생물의 특성에 인간의 특성을 대입한 의인화

의인화비유법 중에서 한국어와 영어 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항목이 바로 무생물의 특성을 인간처럼 빗대어 표현하는 의인화이다. 무생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하는 구문들은 사실상 영어에서는 매우 일반화되어 거의 비유법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인화의 대상이 되는 무생물들은 다시 크게 (1) 질병, 사건이나 사고, (2) 자연재해나 날씨를 비롯한 자연현상 및 인간의 신체부위를 포함한 자연물, (3) 사람의 행동과 태도, (4) 자동차와 같은 기계장치, (5)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 (6) 각종 음식물, 약물, 또는 냄새, (7) 사랑, 미움, 분노, 슬픔, 기쁨과 같은 감정, (8) 생각이나 상상과 같은 인지작용, (9) 시간, (10) 공간, (11) 각종 상징과 언어표현, (12) 결혼, 우정과 같은 인간관계, (13) 금전과 같은 경제적 요소, (14) 법이나 제도, 단체 등으로 세분할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무생물들을 의인화비유법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시 인간고유의 속성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감정, 인지작용, 가족관계, 전쟁이나 투쟁, 언어행위, 그림, 연극, 춤과 같은 공연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의 속성들을 완벽하게 총망라해서 분류하기란 본 논문에 할당된 지면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열 네 가지 범주 가운데 (1) 질병, 사건이나 사고, (2) 자연현상 및 자연물, (3) 사람의 행동과 태도, (4) 기계장치, (5)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건, (6) 각종 음식물, 약물, 또는 냄새, (7) 감정과 관련된 의인화구문들을 대표적인 예문들과 함께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²⁾

3.3.1 질병, 사건이나 사고(事故)의 의인화

질병, 사건, 사고 등은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인간의 계획이나 의지가 관여되지 않고 발생하므로 고의성이 개입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치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의 행위인 것처럼 묘사하는 예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활용된 인간의 특성은 (1) 인간특유의 이성, 감각기관과 관련된 지각능력 또는 언어표현능력과 관련된 지적 행위, (2) 손이나 발 등의 신체를 사용하거나 인간의 힘을 사용하여 영향을 주는 물리적 행위, (3) 비유적인 의미로서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4) 자손의 생산 및 양육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네 가지 범주 중에서도 지적 행위와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행위로서의 인간의 속성이 기타의 속성보다 훨씬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이 그 전형적인 예들이다.

(1) 지적 행위

-This fact argues against the standard theories.

-Life has cheated me.

2) 지면관계상 나머지 범주들에 관한 논의는 다음 논문에 발표하기로 함.

- A problem that size demands resources to match.
- A nick anywhere on the car would guarantee I lose my job.
- . . . reality reminded us that the next AHEB meeting was in question.
- It's a fairly serious problem which requires prompt action.
- It was truly a scourge that had no respect for class or money or power or education.
- The result has seen a dramatic growth in such specific elements of tourism as ecotourism, nature tourism, and special interest tourism.
- At first glance, the show's popularity suggests that business is cool again.
- The other details in a breakdown of the suicide figures tell a sobering story given continuing official pronouncements that the nation's economy is finally getting back on track.
- This background already tells us something about Aristotle's philosophical project.

(2) 물리적 힘의 행사

- . . . a car bomb destroyed a hotel where Israeli tourists are known to stay, killing at least 11 people.
- His illness diminished his strength.
- His wife's death drove him to despair.
- This new financial crisis may well dwarf most that have gone before.
- Illness is forcing him to slow down.
- His misfortune gained him sympathy.
- The bombing of the Australian Embassy handed Howard an opportunity to project a tough antiterrorist stance, and highlight security from direct terrorist attack as an electoral issue.
- When I was a child, an accident left my mother paralyzed from the waist down.
- The need for villagers to control their own destinies has prompted a new plan.
- Inflation has robbed me of my savings.
- I was immediately struck by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murders.

(3) 음식물 섭취, 공급

- Inflation is eating up our profits.
- China's surging growth feeds an incessant appetite for U.S. technology.
- The increase in travel costs swallowed up our pay increase.

(4) 자손의 생산, 양육

-Inflation has given birth to a money-minded generation.

한국어에선 이상의 예들에 대응되는 의인화구문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들 문장들은 주어가 모두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한국어의 기본 어법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3.3.2 자연현상 및 자연물의 의인화

영어에서는 인간생활과 가장 밀접한 자연현상인 날씨를 기술하거나 그밖에 움직임이 없는 식물과 같은 자연물을 묘사하는 경우에도 마치 이들이 사람의 속성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묘사하는 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제어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Gale-force winds howled.”와 같은 예에서와 같이 동물에 비유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1) 인간특유의 이성, 감각기관과 관련된 지각능력 또는 언어표현능력과 관련된 지적 행위, (2) 손이나 발 등의 신체를 사용하거나 인간의 힘을 사용하여 영향을 주는 물리적 행위, (3)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공급하는 행위와 같은 인간의 대표적 속성과 함께 삶과 죽음이라는 특성도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자연현상에 관하여 국한적으로나마 의인화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자연현상이나 자연물들이 질병, 사고, 사건의 경우보다 더 친숙하면서도 통제가 어렵고 인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이 그 예들이다.

(1) 지적 행위

-Before them lay a sky bruised with angry clouds.

-His growth has attracted considerable criticism and scepticism about its effects and authenticity.

-Above, the sky was brilliant, the stars clearly visible, the wonder of the galaxies spread out, begging for study, for exploration.

-Blooming agapanthus and hibiscus conspire with white stucco walls, red-tile roofs and royal blue skies to give this cosmopolitan village its distinctive charm.

-When the weather cooperates, guests can sit outside in a garden packed with 100 different species of flowers.

-Bad weather depresses me.

-Bright colors engage a baby's attention.

-Such wilderness in the landscape excited feelings of terror within her which she

had never felt before.

- The weather continues to frustrate the builder's plans.
- The region is a true paradise to be enjoyed as nature intended.
- Her symptoms led her doctors to think she had a stroke.
- Fresh air can make you feel better.
- The party will be held outdoors, weather permitting.
- From the Atlantic to the Pacific, a warm, wet winter promises bumper crops of pollen.
- The feathers of a goose put the newly-fallen snow to the blush.
- The brain often responds more readily to a question than to an answer.
- Eyes speak all languages; wait for no letter of introduction.
- The dietary attractiveness of seafood has stoked demand.
- I could hear the whisper of snowflakes, nudging each other as they fell.
- 그 마음마저 산이 알아버린 것일까.
- 내 손 / 손가락 / 발 / 팔이 말을 안 듣는다.
- 사람의 눈은 속여도 땅은 속이지 못한다

(2) 물리적 힘의 행사

- The bright colors arrested the child's attention.
- The climate of southern Florida attracts thousands of tourists each winter.
- The bright lights of Hollywood beckon many.
- Before them lay a sky bruised with angry clouds.
- The first rays of sunshine caught the tree tops.
- As the sun climbed higher in the sky the heat grew gradually more oppressive.
- A heavy fall of snow had disrupted the city's transport system.
- The object escaped him in his search.
- Freezing weather gripped / seized (over) the country.
- Downed trees on roads were hindering travel in some locations as well.
- Snow-burdened power lines and downed trees have interrupted service for tens of thousands of customers of PEPCO.
- There's a lick of pink skin jumping out over his collarbone.
- Bitter cold and heavy snowfalls continued to kill across central Europe.
- The year's worst dust storm plagued much of Korea yesterday.
- The mix of contaminants poses a serious disease risk to those wading through the filthy water on rescue and body-recovery missions.

- The storm raged all night.
- The cold was startling, like a slap to the face.
- Snow sneared traffic in the southeast of the country and trapped many motorists in their cars overnight.
- After a few false starts, spring seems to be here to stay.
- A light breeze stirred the leaves lying on the path.
- 봄바람이 불을 간지럽힌다
- 빛이 어둠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 이놈의 보일러는 날씨가 눈만 흘겨도 고장이 나는데

(3) 음식 섭취 (배출)

- A fire has been left to die in the fireplace, but the embers are still raw, spitting up stray flames and red heat.
- But once again, the Mayor has seemed able to bestir himself only when licked by the flames of crisis.
- The whole building was swallowed up by the flames.
- Everything was swallowed up by the darkness.
- 불길이 건잡을 수 없이 번져 건물을 통째로 집어 삼켜 버렸다.
- 해일이 도시전체를 집어삼켰다

(4) 삶과 죽음

- A fire has been left to die in the fireplace, but the embers are still raw, spitting up stray flames and red heat.

3.3.3 사람의 행동과 태도의 의인화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 자체는 인격을 가진 완전한 유기체로서의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므로 한국어에서는 행동이나 태도를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의인화비유법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영어의 경우 이러한 행동이나 태도를 지적 활동을 하거나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치환하여 표현하는 예들이 다수 관찰되었다. 다음의 영어의 예들은 한국어의 대응 표현을 찾기 어렵다.

(1) 지적 행위

- His conduct admits of no excuse.
- Being quiet allows answers to surface.

- My very presence will awe my students into being obedient and respectful of authority.
- Her presence has brought us so much happiness.
- His success earned him respect and admiration.
- His rudeness fanned her irritation into anger.
- The white coat, serious demeanor, and sober tone of voice framed the man as a doctor.
- The furor over that last perceived slight gives some indication of why the word processor issue has fanned such passions.
- The queen's visit got me to thinking what ever happened to the Korean royal family.
- Such a badly presented exhibition invites criticism.
- Abuse doesn't know color, it doesn't know race, it doesn't know the neighborhoods, or socio-economic rules.
- His rudeness made me really angry.
- Cruelty to animals offends many people.
- Jerry's look said, *I apologize for my father a million times over.*
- . . .officials are hoping the Olympic Opening Ceremony will see the ground filled to its capacity of 110,000.
- Recent events send chills into the hearts of investors and tourists.
- A potpourri of picnics, barbecues, hiking, ball games, sailing and surfing, fishing, art shows and party festivities all shout "Celebration!" to those who choose to participate.
-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 The disorganized meeting suggested a lack of proper planning.
- Experience has taught them that there will always be food here, replenished every day, so everywhere nuts and acorns go unburied.

(2) 물리적 힘의 행사

- Learning and laughter go hand-in-hand, and always have.
- Her appearance is hurting her professionally.
- From San Francisco the 150-mile drive south leads visitors to High One, a dramatic ribbon of road that hug central California's precipitous coastline.
- A broad smile lit up her face.
- During the summer of 1937, the Paris Exhibition provided the opportunity for or-

ganised tours of Paris for up to 700,000 provincials.

- The big match pulled in an enormous crowd.
- The women's movement that began in the late 1960s raised the spectre of women's autonomy and access to power-a spectre that has in the interim acquired flesh and blood.
- The first tour, scheduled for June 5-6 (Departure time 8:00 a.m.) takes tourists to Namwon City and Posong-gun county, which is famous for its traditional Pansori singers and natural surroundings.
- Combining live action and multimedia technology, this dynamic show takes you on a whirlwind tour from the Big Bang to the very end of the universe.
- The event has thrown the universe into a fresh perspective.
- 걸음아 나 살려라.
- 무리한 환율 방어가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 온다.

(3) 자손의 생산, 양육

- Suicide is the child of despair.
- Violence is the child of anger.
- The Michelson-Morley experiment gave birth to a new physical theory.
- Her disappearance gave rise to the wildest rumors.

(4) 음식의 섭취와 공급

- The divorce was painfully public, feeding her dislike of the press.
- The drinking and the guilt fed on each other.
- Campaigning swallows up a lot of time without guaranteeing success.

한국어의 예에서 “걸음아 나 살려라”는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숙어적 표현이므로 진정한 의인화 구문이라고 할 수 없다. 즉, “걸음이 나를 살렸다, 걸음이 그를 살렸다” 등으로는 활용되지 못한다. 다른 한 경우는 “An arbitrary protection of currency rate gives rise to huge after-effect in the future.” 정도의 일반적인 영어 표현을 번역한 번역체 한국어이지 한국어 본래의 속성을 반영한 구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도 예외적인 예로 보아야 할 것이다.

3.3.4 기계장치의 의인화

기계장치는 인간의 행동을 대신하여 준다는 점으로 인해 인간의 속성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상이지만 이 역시 한국어보다는 영어에서 훨씬 다양하게 의인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기계장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므로 인간의 속성 중 지적 행위보다는 물리적 힘의 행사와 관련된 속성만이 활용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gas-thirsty SUVs”나 “시계에 밥을 주다” 등과 같이 음식물 섭취와 관련된 속성이 영어와 한국어 공히 사용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 This elevator cannot carry more than twelve persons.
- ... speed-of-light machines confined our minds to the space of a tiny screen and left us lost in terms of the big picture.
- A heavy piece of machinery fell on him and crippled him for life.
- I hope Mary’s new hi-fi won’t distract her from her studies.
- In fact, when we got lost looking for a restroom in a museum, a guard took us to an elevator that got us to our destination.
- This bus will take you to the station.
- 車, 너무 똑똑해도 탈...첨단장비 고급차들, 잔고장 많아
- [이놈의 보일러는] 내가 아무리 용을 쓰며 돌려도 꼼짝도 하지 않다가 수리공의 발소리를 들으면 금방 돌아가는 시늉을 한다
- 부지런한 물방아는 얼 새도 없다

기계장치는 그 움직임의 속성 때문에 인간의 행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비유 표현에서 목표 영역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다음 예에서와 같이 근원영역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꿈과 활력의 발전기입니다.
- 공무원 줄줄이 비리 ‘나사 풀렸다’
- 파국적 수준의 스트레스란 그런 상황에 놓이면 아무리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외없이 망가질 수 밖에 없다는 ‘재앙적 상황’을 일컫는 개념이다.
- He was the spark plug as well as the transmission of the machine.
- Seiji Ozawa was in rare form . . . he ran on 12 cylinders.
- A powerful process is at work here, flying below your radar.
- When Tom comes home, he wants to relax and unwind by quietly reading the news.

3.3.5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건의 의인화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건에는 각종 의류, 가구, 각종 연장이나 도구, 장난감, 책이나 그림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인간생활에 밀접한 물건들은 영어의 경우 의인화가 지적 행위와 물리

적 힘의 행사와 같은 인간속성에 빗대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대응되는 구문을 찾기가 어렵다.

(1) 지적 행위

- A tilt table accustoms his body to being upright.
- I'm sure this delightful book will appeal to children of all ages.
- And I would not let stiff, expensive clothes or a backward-mounted reel deceive me into thinking he had nothing to teach me.
- The new toy didn't engage the child.
- That book engaged his attention for hours.
- The white coat, serious demeanor, and sober tone of voice framed the man as a doctor.
- . . . he was greeted by two freshly painted beds.
- . . . clothing that invites leers and innuendo.
- The present didn't please her as much as I'd expected.
- That overcoat should see me through the winter.
- Clothes can tell a lot about a person.
- Such formal dress might turn people off at meetings of artists or writers.
- 너 신발이 돈 달랜다. [신발이 낡았구나.]

(2) 물리적 힘의 행사

- How much did the picture fetch?
- Is that tight shoe hurting you?
- Also Thursday, a roadside bomb injured three American troops near Fallujah.
- A shingle blown off a roof fell on a 68-year-old woman, Choi Ae-soon, in Posong, South Cholla Province, killing her.
- Three powerful car bombs exploded across Iraq on Monday morning, killing at least 26 people and wounding more than 100 others.
- Don't let so slight a thing put you out.
- A curtain does not stop sound.
- If you really want to convince them, dangling earrings and skirts or other feminine clothing would undoubtedly sway the undecided.

3.3.6 음식물, 약물, 냄새의 의인화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음식물 역시 인간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영어에서는 인간의 속성에 빗대어 표현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표현들은 이와 같은 의인화가 어색하다.

(1) 지적 행위

- Your perfume brought to mind the evening we spent in Monte Carlo this year.
- For me, the smell of coconut oil conjures up visions of palm trees waving in the breeze.
- This drug helps depress high hormone levels.
- These herbs will inspire you to try out all sorts of exotic-flavored dishes!
- This medicine will make you feel better.

(2) 물리적 힘의 행사

- A little meat will not do you a harm.
- This spray helps to ease nasal congestion.
- A fine dessert finished the meal.
- Pills for seasickness often induce drowsiness.
- White wine provided the perfect accompaniment to the meal.
- The odor from cigarette butts and from a coffee can that had been used as a spittoon sent Mary Lee hurrying to open the window in the back and reopen the front door.
- The drugs stimulate the damaged tissue into repairing itself.
- Do we need all these drugs? A relative handful yank many people away from almost certain death, like some antibiotics and AIDS medicines.

3.3.7 감정의 의인화

감정은 그 속성 상 인간의 지적 영역에 속한 범주라는 점에서 지적인 행위와 관련된 속성보다는 음식물 섭취, 자손의 생육 등을 포함한 물리적 행위와 관련된 속성으로 비유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범주와 구별된다. 다음의 예들은 모두 인간의 물리적 행위와 관련된 속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 Disappointment was beginning to eat a hole in his chest when she came out of the

back of the house and hurried along behind the cabins.

-Hatred is the child of misunderstanding.

-His desire to do it blinded him to all the difficulties.

-Hatred dances in Taft's eyes.

-Anger, fear and resentment set her heart hammering.

-Outrage over the cartoons, first published in a Danish newspaper in September and reprinted in Europe more recently, has sparked demonstrations, economic boycotts and the torching of Danish embassies in Lebanon and Syria.

4. 인간의 속성과 의인화에 활용된 의미범주

영어에서 한국어의 경우보다 훨씬 다양한 의인화비유법을 활용하는 것은 무생물을 자유롭게 타동사의 주어로 사용하는 영어의 기본적인 구문상의 특성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분석적이며 원인-결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저맥락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어의 배경적 문화는 분석적이기 보다는 주어진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고맥락 문화로서 어떤 사건이나 행동을 기술할 때 주어와 목적어 관계가 표현되어야 하는 타동사보다는 그 상태 자체를 묘사하는 자동사를 주로 사용하는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근원영역을 사람으로 한 의인화비유를 의미 범주에 따라 크게 14 종류로 구분하여 볼 수 있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로 (1) 질병, 사건이나 사고, (2) 자연현상 및 자연물, (3) 사람의 행동과 태도, (4) 기계장치, (5)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건, (6) 각종 음식물, 약물, 또는 냄새, (7) 감정과 관련된 의인화 구문 등 총 일곱 가지 범주만을 분석하였다. 영어에서는 이들 각 분야마다 (1) 인간특유의 이성, 감각기관과 관련된 지각능력 또는 언어표현능력과 관련된 지적 행위, (2) 손이나 발 등의 신체를 사용하거나 인간의 힘을 사용하여 영향을 주는 물리적 행위, (3) 비유적인 의미로서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4) 자손의 생산 및 양육 행위 등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의인화 비유법이지만 각 의미 영역에서 사용된 인간의 특성들은 서로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인간언어는 Chomsky가 설파한 바 있는 무한성(infiniteness)과 창조성(creativity)이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그 사례를 정량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본 논문을 위하여 필자가 영어원문에서 실제 사용된 예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대체적인 특성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인 언어사용이나 감정이나 이성과 관련된 지적 행위를 지칭하는 의인화는 주로 질병, 사건, 사고 분야에서는 본 논문에서 인용한 대표적인 예문 총 26건 중 10건(38.4%), 자연현상 분야에서는 총 44건 중 19건(43.2%), 사람의 행동 분야에서는 32건

중 19건(59.4%), 물건의 분야에서는 총 20건 중 12건(60%), 음식물 분야에서는 총 13건 중 5건(38.5%)으로 나타났고 기계장치와 감정분야에서는 지적 행위 지칭의 의인화 구문을 관찰할 수 없었다.

반면에 인간의 물리적 행위를 지칭하는 의인화 구문은 질병, 사건, 사고 분야에서는 총 26건 중 11건(42.3%). 자연현상 분야에서는 총 44건 중 22건 (50%), 사람의 행동 분야에서는 32건 중 9건(28.1%), 물건의 분야에서는 총 20건 중 8건(40%), 음식물 분야에서는 총 13건 중 8건(61.5%)로 나타났고 지적 행위 지칭의 의인화는 발견되지 않았던 기계장치와 감정분야에서는 각각 6건 전부(100%), 5건 중 3건(60%)로 나타났다. 정확한 통계적 의미는 없지만 이 수치를 비교함으로써 각 분야의 대체적인 특성을 알 수 있거니와 언어행위나 인지적 활동으로 의인화되는 정도가 가장 큰 분야는 인간생활과 관련이 있는 물건의 경우(60%)와 인간의 태도 및 행동(59.4%)이었다. 그 다음이 인간의 계획이 작용할 수 없는 자연현상(43.2%)과 음식물(38.5%), 그리고 질병 및 사고 분야(38.4%)로 나타났다.

인간의 의도와 계획이 관여할 수 있는 분야의 대상은 그러한 인간의 지적 속성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지적 영역으로 빚대어 표현되기가 더 용이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 반면, 인간의 계획과 무관한 자연현상, 음식물, 질병이나 사고, 기계장치, 감정 등은 인간의 인지적 활동과 연관시켜 파악하기보다는 물리적 영향력을 가지는 속성으로 의인화되고 있음이 분명히 밝혀졌다. 특히, 기계장치, 음식물, 감정, 자연현상 등 인간의 의도나 계획이 관여하지 않는 대상을 기술할 때 각각 100%, 61.5% 60%, 50% 등으로 과반수 이상 또는 전부가 물리적 영향력을 가지는 속성을 부각시키는 의인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계획이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인지적 속성을 부각시키는 의인화 구문인가 아니면 물리적 영향력을 부각시키는 의인화 구문인가를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기준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예들을 대상으로 비교하게 되면 좀더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본 논문은 그 전체적인 윤곽을 보일 수 있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많은 자료를 비교 검토할 경우 각각의 인지적 속성, 물리적 영향력의 세부적인 차이도 분야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룬 예들만 가지고도 분야별로 몇 가지 의미 있는 차이점들을 관찰할 수 있었거니와 예를 들어, 같은 인지적 속성을 원용하고 있으나 질병, 사건, 사고 분야의 경우는 *argue*, *cheat*, *demand*, *require*, *have no respect*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지작용을 지칭하는 표현이 주로 사용된 반면, 자연현상의 경우에는 *attract*, *cooperate*, *engage*, *excite*, *permit*, *promise* 등과 같은 긍정적이며 호의적인 인지작용을 지칭하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인지작용에서도 *see*와 같은 동사는 질병, 사건, 사고 분야와 사람의 태도와 행동 분야, 그리고 물건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이 관찰된 반면, *speak*, *tell*, *say*, *suggest*, *teach* 등과 같은 언어행위 표현은 질병, 사건, 사고 분야, 자연현상, 사람의 태도와 행동, 물건 등에서는 관찰되었지만 기계장치, 음식물, 감정의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언어행위 표현이 비유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인간의 언어행위는 그 자체가 다시 의인화비유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중요한 범주이므로 언어행위가 의인화 비유시 활용되는 주요 속성인가의 여부는 그 목표영역에 관한 인간의 이해와 평가를 보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그것이 영어에서는 한국어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나 단순한 언어차원을 넘어선 진정 의미 있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5. 결 론

이상에서 한국어에 비하여 의인화 구문이 훨씬 다양하게 사용되는 영어 의인화 구문들을 목표영역으로 사용되는 대상의 의미범주에 따라 대표적인 예문들과 함께 분석하여 보았다. 은유에서 목표영역이 되는 의미 범주는 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지각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그 종류와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본 논문에서는 은유로 분류되기는 하나 인간언어표현에서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영어의 의인화구문을 의미에 따라 분석하면서 한국어와의 차이점을 논하였다. 영어의 구문적 특성이 의인화 구문에 그대로 반영되는 바, 다양한 분야의 무생물을 타동사 구문의 주어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자유로운 영어의 특성이 이러한 다양한 의인화구문의 발달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의인화가 사용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인화 구문은 한국어를 통한 인지적 관습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며 원문의 구조를 그대로 대응시켜 번역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구문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의 특성은 단순한 문법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실제 언어 활용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영어교육의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한영간 차이점에 관한 연구는 더 활성화되어야 하리라 본다.

본 논문에서는 많은 예문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주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의미범주 분석 작업이 요즈음 화용론 등의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코퍼스 언어학의 접근 방법이 적용되기도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단어의 빈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범주에 속한 다양한 구문들이 긴 문맥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비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후속 논문에서는 나머지 일곱 개의 의미범주에 관한 의인화를 논하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 이영옥, 2001. “무생물 주어 타동사구문의 영한번역”. 『번역학 연구』, 2:1. 53-76쪽.
- 이영옥, 2004. 『한영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21세기사.
- Heine, Bernd. 1997.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övecses, Zoltán. 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ibniz, Gottfried Wilhelm. 1903. *Opusculs et fragments inédits de Leibniz*. Paris: Louis Couturat.
- Nida, Eugene A., and C. R. Tabe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icoeur, Paul. 1975. *The Rule of Metaphor: The creation of meaning in language*. Translated by Robert Czerny with Kathleen McLaughlin and John Costello, SJ. London: Routledge.
- Sapir, Edward. 1949. *Selected Writings in Language, Culture, and Person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Verschueren, Jef. 1999. *Understanding Pragmatics*. London: Arnold.
- Wierzbicka, Anna. 1992. *Semantics, culture, and cognition: Universal human concepts in culture-specific configur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erzbicka, Anna. 2006. *English: Meaning and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Yngve, Victor H. 1986. *Linguistics as a Scienc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이영옥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관광영어통역 전공
130-701
E-mail: yolee@khu.ac.kr

접수일자 : 2008. 03. 31

게재일자 : 2008. 05. 06

